

섯밭들 산골마을 영화제 준비 박차

장수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

현재까지 출품작 공모 90개국 660편 접수

장수군이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장수에서 열리는 '제2회 섯밭들 산골마을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 2022년 개최된 제1회 섯밭들 산골마을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됐다.

섯밭들 산골마을 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감독들과 한국 감독, 예술인, 지역민이 참여하는 마을 중심의 영화제로 기존의 영화제들이 영화인들을 주축으로 도시 중심으로 개최되는 것과 달리, 지역민들이 세계 각국의 로컬영화 감독들과 함께 세계마을의 삶을 살펴보고, 나아가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영화제 출품작 공모에 23일 현재까지 미국, 중국, 프랑스, 인도, 이란 등 90개국에서 총 660편이 접수돼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막작은 지구촌 세계마을 이슈를 다룬 영화로 상영할 예정이며, 영화제 기간 동안 한누리영화관, 섯밭들 야외 상영관 공간여덟 3개관에서 20편 내외를 상영할 계획이다.

임민규 문화관광과장은 "섯밭들 산골마을영화제를 통해 장수군민들이 다양한 나라의 영화들을 한 곳에서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섯밭들 산골마을 영화제 홍보 배너

"사람이 봄비는 꿈 반드시 이뤄야"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 인구유입 다양한 방안 제시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의 무주군도 사람이 봄비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구유입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의료시설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의장은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가정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아이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정책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광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팜 활성화 등 농업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주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인구를 늘려 미래 정주인구로 유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고향사랑 기부자, 출향인, 동년 및 동학생, 휴양과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무주를 찾는 생활인구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농촌일손돕기나 무주워킹홀리데이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인구는 우리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인구수 밑 위기에 처한 무주군을 살리기 위한 인구정책과 사업 활성화에 일심동체가 되어 총력을 다 한다면 '사람이 봄비는 무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가져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통합 앞장' 결의

무주군은 25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국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6.25 참전유공자와 무주군지회(회장 신윤식)가 주관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유봉원 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내 안보단체장들과 보훈단체 회원 등 2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사에서 6.25 노래제창과 만세삼창의 시간을 가졌으며 '자

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성면 차동훈 씨와 적상면 정석규 씨, 설천면 함영근 씨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군인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으며 안성면 이병식 씨와 박광현 씨가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적상면 김중삼 씨와 무주읍 권철복 씨, 안성면 김상원 씨가 무주경찰서장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안성면 이진호 씨와 무풍면 현병오 씨가 6.25

/무주=전문선기자

참전유공자와 무주군지회장상을 수상해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73년이 지나지만 6.25 전쟁의 상흔과 아픔은 여전히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새기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일궈 나가는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 유공자들과 보훈가족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분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보훈단체(7개 단체 495명) 및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일자리센터, '일자리 만남의 날' 개최

진안군일자리센터는 지난 23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2023 진안군 일자리 만남의 날' 채용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채용행사는 구직자들이 진안군 일자리센터뿐만 아니라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진안노인취업지원센터, 진안군가족센터 등 진안군 일자리 유관기관을 한 자리에서 만나, 구직상담 및 이력서 컨설팅 등을 받고 채용행사에 참여할 8개 기업체 인사담당관에게 1:1 현장면접 및 상담까지 눈소통으로 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



또한 농촌융복합사업 및 스마트팜 ICT 창업 전문가 컨설팅, 타로취업상담, 스트레스 진단, 퍼스널 컬러 진단,

/진안=우태만 기자

인생네트워크 기획촬영 등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진안공업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입학부처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로 북적여 진안군 일자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촌활력화 감사과 과장은 "올해 채용행사는 전라북도일자리센터, 진안군일자리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욱 규모를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 구직자들의 취업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 무주서 '질주'

전국선수권대회 성료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가 지난 24일과 25일 무주군 일원(무주면대밭사자~대치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전북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전국에서 150여명의 지체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24일 오전 9시 반딧불시장 출발선에 선 선수들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회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그리고 김형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회장이 함께 쓴 총 소리에 맞춰 출발, 무주읍 대치리까지 7km 구간을 달렸다.

경기는 장애유형별로 개인도로와 개인도로 복주로 진행이 됐으며 순위는 코스를 달려 측정된 시간이 빠른 순서로 결정됐다.

선수들은 "무주는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며 "무주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이클 선수로서 실력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초록이 무성해진 싱그러운 무주에서 뜻깊은 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라며 "아름다운



산과 강을 마주하며 달릴 수 있었던 무주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힐링하고 실력 또한 한층 더 향상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는 장애사이클인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우수 선수를 양성하고 재능을 확대해 나간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의회 정례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지난 22일 제35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채택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15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훈)에서는 7개 읍·면, 1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개선사항 제시와 함께 사후관리, 향후 사업장의 건설 운영 등을 강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안의 집행실적 및 이월 현황, 지출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촉구

문은영 무주군의원, '자생력 갖고 지속성 유지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지역적 특색을 살려야 한다고 하며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자생력을 갖고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화된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지역 상권은 점점 어려워지고 인구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기초에 시행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처럼 추진되어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군의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바려진 빈집을 고쳐 지역 특색과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배 배고 관 내서 지역민의 문화와 상품, 서비스를 담아 관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은 지원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우리 군민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주민 정주환경과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토대 마련 등을 제시한 문은영 의원은 다양한 수요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특화된 '무주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은 산림청과 전북도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현장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협의회 회의 개최

진안군은 산림청과 전북도 관계자들과 함께 내년 10월 개원을 앞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현장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협의회 회의는 지난 2018년부터 분기별로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립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북도, 진안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은 22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산림청과 전북도 관계자들과 함께 내년 10월 개원을 앞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현장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협의회 회의는 지난 2018년부터 분기별로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립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북도, 진안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은 22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산림청과 전북도 관계자들과 함께 내년 10월 개원을 앞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현장에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업 관련 유관기관 조합장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23일 지역 농업 발전 및 농정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농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관내 농·축협 조합장, 농업군자부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진안군 농업 발전과 농업 분야 소통행정을 위해 행정과 농협 간 상호 업무 협력에 노력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농정간담회는 현재 추진 중인 협력사업 및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 및 정책추진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정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농업발전제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됐다"며 "관내 농협 및 유관 기관들과 함께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적기준점 표시판 설치 추진

진안군은 지난 23일 지적측량 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지적기준점 표시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은 관내 시설차된 지적기준점 6,592점과 신설예정인 641점에 대해 군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에서 설치할 예정이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각종 건설 공사 등에 활용되므로 활용되며, 특히, 세부측량 시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활용돼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은 이번 지적기준점 표시판 설치로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스마트가든볼을 사업 조성 완료

진안군은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실내형 정원인 '스마트가든볼'의 올해 사업 조성을 완료했다.

스마트가든볼은 실내공간에 적합한 식물 소재와 자동화 관리 기술을 도입해 치유·휴식·관상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으로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와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 등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정원 사업이다.

군은 올해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주천면행정복지센터, 백운면 환마실 등 총 3개소에 스킨답서스 등 6종 2,741본의 정화식물을 벽면에 녹화했다.

군은 이번 조성이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 및 이용자의 심신안정을 돕는 치유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춘선 산림과장은 "사계절 푸른 실내 정원에서 잠시나마 일상 속 작은 힐링을 누릴 수 있는 녹색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